

# 북한의 대중 설득 정책과 김일성 담화의 언어 전략

전미영(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치학)

## 1. 머리말

본 논문은 김일성 담화에 대한 언어 분석을 통해 북한 체제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언어적 설득 전략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 구축 과정에서 대중을 ‘설복’하여 체제에 복종케 하는 일을 가장 핵심적인 당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언어적 설득을 통한 정당화 작업에 주력해 왔다. 레닌의 선전 선동 이론의 영향하에 김일성은 정권 장악 초기부터 대중을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복’에 의해 다스려야 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으며 그것을 당 사업의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김일성은 “령도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사업의 집행에서 설복과 해설의 방법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법은 “대중으

로 하여금 무진장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sup>1)</sup>하게 할 수 있다고 그 정책적 의미를 밝힌 바 있다.

북한 체제에 있어서 대중 설득 정책은 북한에서 스스로 “당 사업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정치 사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사람과의 사업”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 “정치 사업”이란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 의지로 무장시켜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 세우며 그들을 당 정책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 정치 사업”<sup>2)</sup>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치 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당 사업의 기본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배경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주체 사상의 “사상론”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대중 설득 정책을 “사상 개조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시켜 왔다. 즉 혁명 운동에서 인민 대중의 자주적인 사상 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혁명과 건설에서는 반드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인민 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 개조 사업”, 다시 말해 “인민 대중을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드는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다.<sup>3)</sup> 따라서 이러한 대중 설득을 통해 사상, 도덕적 동기를 강화시킴으로써 명령적인 내용을 도덕적·규범적인 언설 체계로 치환시켜서 인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추기는 것이다.

대중들을 설복하고 교양하여 그들을 사상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 
- 1) 김일성,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해”(1955. 4. 1),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279쪽.
  - 2)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296쪽.
  - 3) 위의 사진, 308쪽.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언어 정책이었다. 김일성은 집권 초기부터 대중 동원과 관련하여 언어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혁명과 대중 동원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언어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북한에 있어서 언어는 “혁명의 무기”이자 사상 개조의 중요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언어 실천은 이 원칙에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언어 원칙에 따라 북한의 모든 “말과 글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대중들에게 목적 의식성을 부여하여 그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수단”이자 “당의 정책을 근로자들에게 해설 전선하며 온 사회를 수령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sup>4)</sup>

특히 인민 대중을 설득하고 선전, 선동하기 위해 구사되는 지도자의 담화에는 그 혁명성과 사상성이 목적 의식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입각하여 구사되고 있는 김일성의 담화는 주민들에게 하나의 교시로서, 지침으로서 절대화되어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지배해 왔다.

벨이 “정치란 담화이다”<sup>5)</sup>라고 정의한 바 있듯이 말은 지배할 수 있는 힘이며, 권력의 원천이다. 즉 정치 능력이란 발휘되는 힘의 양이 아니라 구사되는 ‘말’의 능력을 통해 측정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정치는 김일성의 ‘말’로써 이루어진다고까지 언급될 정도로 김일성은 무수한 담화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대중들을 설득해 왔다.

김일성 담화의 언어 사용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표현 방식으로서의 수령의 ‘문풍(文風)’이며, 다른 하나는 대중적 유포 방식으로서의 ‘김일성 담화 인용’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4) 사회과학원 어학연구소 편, 『우리당의 언어정책』(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48쪽.

5) David, Bell, *Power, Influence and Authorit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p. 10.

서는 김일성 담화의 문풍과 인용 원칙에 주목하여 김일성 담화의 언어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김일성 담화의 '문풍'과 화법

### 1) 수령의 '문풍'

김일성은 언어 사용을 사상 개조의 과정으로 보았다.<sup>6)</sup> 따라서 “언어 사용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철저하게 인민 대중을 사상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들의 적극성을 발양”시키는 일이 언어 사용의 일차적 목적이며, 이를 위해 북한에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지켜야 할 것이 언어 사용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김일성은 이와 관련하여 “오직 대중을 위하고 대중의 심리를 잘 알고 대중이 요구하는 글을 쓰고 말을 하며 대중을 가르치며 대중에게서 배우라”<sup>7)</sup>고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김일성 담화의 구사 방식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구사되고 있다. 북한측의 설명에 따르면 김일성은 해방 후부터 “대중이 알아들을 말”, “노동자, 농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대중이 요구하는 글”을 씀으로써 대중을 “깨닫게” 했다고 한다.<sup>8)</sup> 그리고 이러한 김일성의 언

---

6) 사회과학원 어학연구소 편, 『우리당의 언어정책』, 43쪽.

7)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1946. 5. 24), 『김일성선집』, 제2판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98쪽.

8)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평양: 과학원출판사, 1962), 20쪽.

어 구사의 방법은 북한 사회에서 “수령의 문풍”으로 칭해지며, 언어 사용의 “최고의 본보기”로 추앙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문풍을 최고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그것을 따라 배우는 것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과업이 전면에서 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sup>9)</sup>

따라서 북한에서는 사상 교양의 상당 부분이 수령의 문풍을 익히는 부분에 치중되고 있다. 즉, 북한의 언어 이론에 따르면 수령의 문풍을 배우는 것은 “사회에 모든 성원들을 주체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더욱더 심화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이 수령을 충성으로 우러러 모시고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 투사를 양성하는 사업”<sup>10)</sup>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의 문풍을 따라 배울 것이 목적 의식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독자(인민 대중)들로 하여금 “김일성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sup>11)</sup> 즉, “온 사회의 언어 생활이 수령의 문풍으로 통일될 때”, 이것은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개조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온 사회를 김일성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모든 사람들을 수령에게 충직한 참다운 혁명 전사로 키울 수 있다”<sup>12)</sup>는 것이다. 이는 결국 모든 사람을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 숨쉬고 행동하는”<sup>13)</sup> 철저한 김일성

---

9) 김정휘·정순기, 『주체의 언어이론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1133쪽.

10) 언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문풍』(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8쪽.

11) 위의 책, 40쪽.

12) 위의 책, 41쪽.

13) 이상벽, 『조선말화술』(서울: 사회과학출판사, 1975), 7쪽.

주의자로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시키기 위한 목적을 “훌륭히 구현”했다는 “수령의 문풍”, 즉 김일성 담화문의 언어 표현의 특징을 북한측은 “진실성과 인민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① 통속성·평이성·민족성 :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지 않음, 의성어·의태어 사용, ② 명료성 : 대조법, 비유법, 속담의 사용, 자문자답의 방법, ③ 간결성 : 비유법, 조목별 서술로 설명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평가에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서대숙 교수 또한 김일성의 문장 스타일을 평가한 바 있다. 서대숙 교수에 따르면 김일성의 글쓰기 스타일은 ① 장황함(긴 문장), ② 통계 자료의 활용, ③ 항목화 서술, ④ 은유적 표현, ⑤ 한국어의 사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sup>15)</sup> 이 두 가지의 평가를 비교해 때 북한측이 평가하고 있는 ‘진실성’, ‘간결성’을 제외하고는 북한측의 입장과 서대숙 교수의 평가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대중들의 “심리를 움직이고 그들을 사상적으로 발동”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구사되고 있는 김일성의 ‘문풍’, 즉 언어 표현 기법의 특징을 ① 표현의 통속성, ② 표현의 반복성, ③ 은유, 비유, 속담의 사용, ④ 우리말의 사용, ⑤ 항목화, 통계 자료의 사용 등으로 세분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표현의 통속성

혁명성과 선전 선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김일성의 언어 구사 방법,

14)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 96~130쪽.

15) Dae-Sook, Suh, *Korean Communism, 1945~1980*(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1), pp. 11~14.

즉 “수령의 문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말은 될수록 로동자 농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 자신이 쓰는 쉬운 말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선전 선동의 기본 원칙으로 수없이 언급하고 있다.

선전원과 선동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이 알아듣고 깨닫게 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sup>16)</sup>

즉, 인민 대중이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말과 글은 대중에게 혁명의 진리를 알려줄 수 없고, 대중을 교양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조직 동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sup>17)</sup>

김일성은 “대상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글을 씀으로써 “인민 대중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며 인민 대중을 혁명과 건설으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자”<sup>18)</sup> 했던 것이다.

김일성이 해방 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시기에는 주로 인민 대중에게 생소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선전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인민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분히 감성적인 호소로 접근하고자 했던 것도 이러한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적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9)</sup>

“물은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입니다.”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

16) 김일성,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1958. 11. 20), 『김일성저작집 12』, 606쪽.

17) 사회과학원 어학연구소 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언어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129쪽.

18) 언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적 문풍』, 41쪽.

19) 위의 책, 65쪽.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대중의 지적 이해의 수준을 고려한 측면에서는 선전 선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언어 활동에 있어서 언어의 인민성과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대중의 감정에 맞는 쉬운 말을 써야만 듣는 이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언어의 ‘인민성’의 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김일성의 담화문은 철저히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있다.

즉, 북한측에 따르면 김일성의 교시문에서는 입말(口語)과 글말(文語)의 차이를 두지 않고 “떠벌이다, 맹탕 때려먹다, 앞길이 캄캄하다, 뜯어내다, 각을 뜨다, 녹아나다” 등과 같이 인민들 속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와 통속적인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깊은 진리로 알기 쉽게 리해”되어 인민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sup>20)</sup>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입말’ 또는 ‘말체’라고 표현되는 구어체 문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구어체 표현이 문어체 표현보다 인민 대중에게 친숙하고 그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1)</sup>

김일성은 “리론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책에서 문구를 따기 좋아하며 힘든 말을 늘어놓아 남이 알아들을 수 없게 한다”<sup>22)</sup>고 지적하였으며, 당 정책 선전은 “유격대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통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언어 이론가들은 쉬운 말과 글을 사용한다는 것을 수령의 문풍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20) 이상벽, 『조선말화술』, 14쪽.

21) 언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문풍』, 380쪽.

22) 김일성, “조선어를 발전시키는 몇가지 문제”(1964. 1. 3), 『김일성저작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12쪽.



누구나 다 이해할수 있는 글이라야 잘된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수록 인민들이 이해하기 험한 글을 많이 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sup>23)</sup>

북한측의 설명에 의하면 김일성은 그 이전까지는 “통속적”이라 하여 논설, 공적인 연설 같은 데서 잘 쓰이지 않던 일련의 어휘들을 적극 사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쉬운 표현을 쓰기 위한 의도에서 김일성이 통속적 표현 이외에 자주 활용한 기법은 의성어, 의태어의 빈번한 사용이다.

<의성어·의태어 사용의 예><sup>24)</sup>

- 모험을 하다가는 오히려 ‘졸딱’ 녹을 수 있습니다.(『김일성선집 6』, 1960, 371쪽)
- 당 위원장이 틀만 차리고 붉은 연필로 남의 이름에 ‘뽁뽁’ 줄이나 굿기 좋아하고서는 사업을 잘 할 수 없습니다.(위의 책, 287쪽)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일성은 공식 담화문에서도 알기 쉬운 표현이라는 미명하에 통속적이고 비속한 표현들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 구사 방식은 지도자 자신의 지적 수준과도 연관이 있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교수가 모택동이나 김일성과 같이 광범위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주로 농촌에서의 실제 경험만을 쌓은 유격대 출신들은 도시화되고 서구화된 인텔리겐치아들을 불신했다는 점을 지적했듯이,<sup>25)</sup> 김일성은 지식인들의 이론적·논리적 표현 방식을 생리적으로

23) 김일성,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73), 252쪽.

24) 이 예시문은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 168쪽에서 재인용.

25) 이정식·스칼라피노,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서울: 돌베개, 1986), 620쪽.

로 혐오했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일성 담화의 이러한 통속성은 김일성 스스로 누차에 걸쳐 강조해 왔듯이 대중의 “심리를 움직이고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목적에서 “노동자 농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한다는 치밀한 정치적 의도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 (2) 표현의 반복성

김일성 담화에서 발견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문장의 반복적인 사용이다. 김일성의 담화문을 북한측은 ‘간결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 자주 반복되므로 길고 장황하다. 이 반복적인 주장은 설득력과 호소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선동성 고조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sup>27)</sup>

김일성의 담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반복 기법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담화를 통해 수없이 되풀이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반복과 되풀이가 자주 사용되는 내용은 김일성의 업적, 정적들에 대한 비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공산주의 사회의 미래 비전 등 체제 정당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또한 김일성이 표현한 중요한 문장들은 북한 사회에서 ‘명언’화 함으로써 모든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북한 언어 이론가들이 김일성의 대표적인 명언으로 평가하는 문구들은 다음과 같다.<sup>28)</sup>

---

26) 앞에서 김일성이 비판해 하지않았던 오기섬은 국내파 공산주의자로 탁월한 조직가이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정통한 이론가였다. 반면 김일성은 중학 2학년으로 정규 교육을 마쳤다고 한다. 김일성의 학력에 관해서는 서대수,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5쪽 참조.

27) 이상벽, 『조선말화술』, 232쪽.

28) 이 예시문은 언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문풍』에서 재인용.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6』(1974), 273쪽).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 사상의 기초입니다.”(위의 책, 277쪽)

“혁명은 인민을 위한 것이며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1968), 518쪽).

### (3) 은유, 비유, 속담의 사용

김일성은 말과 글을 전달함에 있어서 대중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은유, 비유, 속담 등을 빈번히 사용하였다. 북한의 언어 이론에 따르면, 속담이란 발생 발전의 계기와 그 구성적 특징으로 하여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적 수단이라고 한다.<sup>29)</sup>

#### <속담 사용의 예>

- . 우리는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격으로 좀더 잘 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김일성선집 5』(1960), 519쪽)
- . 조선 속담에 “산돼지를 잡으려다가 집돼지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 토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경지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위의 책, 10쪽)
- . “엎어지면 코 닿을 고원에 탄광을 두고 석탄 고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위의 책, 60쪽)
- . 서해에는 고기 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맛있는 고급 어족들이 많습니다. 서해에서 잡히는 전어는 “전어 굽는 냄새에 나가던 며느리도 다시 들어온다”고 할 만큼 유명합니다(『김일성선집 4』(1960), 421쪽)

---

29) 사회과학원 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적 문풍』, 80쪽.

<비유, 은유적 표현의 예>

- . 당 일군은 사업에서는 대중의 선두에서는 기수가 되어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김일성선집 6』(1960), 272쪽)
- . 당이 혁명의 참모부라는 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위의 책, 276쪽)
- . 오늘 우리의 광주리는 해방 직후와 비할 바 없이 커졌습니다.(위의 책, 525쪽)
- . 우리 사회를 빨리 발전시키는 훌륭한 운전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사회의 발전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위의 책, 514쪽)

북한 언어 이론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와 같이 속담, 은유, 비유적 표현은 말을 생동감 있게 한다고 한다.<sup>30)</sup> 김일성은 언어 행위에서 사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담화 행위에서 사상 감정의 축적이 없다면 표현이나 전달의 논리적 과정도 있을 수 없고, 사상과 지식, 감정의 축적이 없이는 상대방을 공감시킬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이란 곧 사상과 감정의 언어적 표현일 뿐이며 언어는 무엇보다 사유 및 그 결과를 물질적 음성적으로 형식화하여 주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sup>31)</sup> 따라서 김일성은 “혁명 사상을 생동감 있고 감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sup>32)</sup>으로 속담을 활용했다.

#### (4) 우리말의 사용

김일성의 언어 정책에 있어서 가장 비중을 둔 부분이 민족어의 사용이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일성은 한자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폐지

30) 사회과학원 어학연구소 편, 『조선로동당의 지도밑에 발달한 우리 민족어』, 126쪽.

31)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648~649쪽.

32) 언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문풍』, 85쪽.

하고 외래어를 정리했다. 따라서 김일성은 우리말의 한자어 표현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어려운 한자어의 사용은 피하고 일상화된 한자어 정도만을 사용하고 있다. 김일성은 “힘든 한자어를 쓰지 말고 군중이 알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야 한다는 것을 당적으로 널리 선전해야 하겠다”<sup>33)</sup>고 교시한 바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쓰는 사람은 민족적 긍지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 나라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식하고 민족적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sup>34)</sup>

우리글의 사용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을 쓰는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다. 즉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리는 것은 말과 글을 대중이 리해하기 쉽게 통속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 요인의 하나”라는 것이다.<sup>35)</sup>

김일성은 우리말 사용에 관하여 “고유어와 한자말이 뜻이 꼭 같을 때에는 고유어를 쓰고 한자말을 쓰지 말도록 하며 사전에서도 그런 한자말은 빼야 할 것”과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말로 고치고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을 지시했다.<sup>36)</sup>

북한측의 설명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논설, 보고 등에서는 “달성하다”, “제시하다”, “축성하다”, “명백히”, “경작하다”, “력량”, “경주하다”, “일방”, “호상”, “원조하다” 등과 같은 한자어는 사용이 허용되나 김일성의 담화는 그와 같은 표현 대신 우리말 어휘를 사용하고 설명한다며, 그 예

33) 김일성,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1964. 1. 3), 『김일성저작선집 4』, 12쪽.

34)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288쪽.

35) 언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문풍』, 71쪽.

36)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79쪽.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37)</sup>

- 우리 당이 '내세운' 웅대한 전망 과업은 우리 근로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김일성선집 6』(1960), 161쪽)
- 이러한 조건하에서 소상품 생산적 개인 농민 경리의 모든 제한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위의 책, 165쪽)
- 토지 개혁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주의 토지와 함께 자기가 '밭갈이 하지' 않는 모든 토지를 몰수하였으며…….(위의 책, 167쪽)

#### (5) 항목화, 통계 자료의 사용

김일성의 담화에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등과 같이 항목별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북한측은 이를 “명료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sup>38)</sup>

또한 김일성은 그의 담화에서 가능한 한 많은 통계 자료를 사용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경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통계를 잘 활용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sup>39)</sup>

예를 들면 1947년에 발표된 1957건의 김일성의 담화문 중 10건의 담화문이 통계 숫자를 나열하고 있다. 이것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경제 관련 담화 4회, 정치 관련 5회, 교육·문화 관련 3회, 보건 2회 등 담화의 주제를 불문하고 통계 숫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담화에 정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계 수치의 진위를 따질 수 없는 북한 주민에게

---

37) 사회과학원 어학연구소 편, 『조선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 106쪽.

38) 위의 책, 119쪽.

39) 김일성, “농촌경리와 립업, 수산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1950. 1. 25), 『김일성저작집 5』(1979), 372~373쪽.

는 김일성의 말과 글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령의 ‘문풍’이라는 표현으로 북한 사회에서 언어 사용의 모범으로 추앙되고 있는 김일성의 언어 표현 기법은 단순한 김일성 개인 취향에 따른 문장 스타일이라고도 치부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북한의 언어관을 염두에 두고 살펴본다면 이러한 언어 기법은 치밀한 정치적 의도하에 구사되고 있는 전략적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언어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듯이 “문풍이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기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과 작풍과 관련된” 것으로서 “문풍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의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상, 사업 작풍의 종합적인 표현”<sup>40)</sup>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의도로 구사되고 있는 김일성 담화의 언어 기법은 그 성격에 있어서 구어적 사고 체계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구어적 사고 체계는 첫째, 문자적 사고에 비해 복잡한 문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분석적이고 논증적인 종속문에 의해 전개되기보다는 나열적이고 첨가적으로 전개된다. 둘째, 분석적이기보다는 취합적이다. 언어는 다량의 장식용 형용사와 항상 붙어 다니는 다량의 동어 반복적 문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형용사들과 문구들은 사고를 안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구어적 언어의 이러한 취합적인 성격의 완고성과 동어 반복의 지루함을 거부할 때만 분석적 사고가 가능하다. 셋째, 동어 반복적이고 모방적이다. 이미 말한 것을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계속 반복함으로써 듣는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말의 가닥을 환기시킨다.<sup>41)</sup>

40) 언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문풍』, 17쪽.

41) 월터 웅,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서울: 문예출판사, 1995), 61~69쪽 참조.

일차적인 구술 문화에서는 (중략) 기억하기 쉬운 형태(패턴)에 입각하여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라야만 했다. 강렬하게 리드미컬하고 균형잡힌 패턴이거나, 반복이나 대구이거나, 두운과 유운이거나, 형용구와 그 외의 정형구적인 표현이거나 누구나가 끊임없이 듣기 때문에 힘 안들이고 생각해 내고 그 자체도 기억하기 쉽고 생각해 내기 쉽게 패턴화된 격언, 혹은 그 밖의 기억을 돕는 형식을 따라야만 했다.<sup>42)</sup>

이것은 ‘인민성’과 ‘혁명성’을 견지한다는 주체의 언어 이론에 입각한 수령의 문풍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어적 사고 체계는 실제적 현실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신념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무비판적 동의 구조를 가능케 한다.

김일성은 말을 하며 글을 쓰는 사업도 하나의 혁명 사업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철저히 인민 대중을 자신의 의도대로 설득하고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김일성은 언어 사용을 사상 개조와 혁명의 수단으로 파악했으며, 모든 언어를 통해 대중을 설득하고 교양 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설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 평이하고 대중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대중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대중 설득을 위해 김일성이 구사하는 이러한 전략적 문풍은 모택동의 언어 구사 전략과 공통점을 갖는다. 언어 구사 방법과 관련하여 모택동이 강조한 점을 보면, “강화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문장을 쓰거나 결의안을 쓸 때, 모두 다 간결하고도 요점 있게 해야 한다”,<sup>43)</sup> “통계 숫자에 관

---

42) 위의 책, 57쪽.

43) 모택동, “당위회의공작방법”(1949. 3. 13.), 『모택동선집 4』(북경: 민족출판사, 1962), 2222쪽.



심을 돌려라”,<sup>44)</sup> “모든 표현 속에는 반드시 중국적 특성을 지녀야 한다, 중국 민중을 위한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신선하고 활발한 중국 작풍과 정신으로 표현해야 한다”<sup>45)</sup>는 원칙을 대중적 언어 구사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택동과 김일성의 문풍의 이러한 유사점은 서구 사회주의와는 다른 동아시아 사회주의의 혁명 전략상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은 식민지라는 열악한 조건과 낮은 생산력 수준에서 혁명 투쟁을 전개하면서 군중 노선을 강조하며 대중적 실천을 이룬 발전의 기초로 삼아왔다. 모택동은 혁명 사업에서 군중에 대한 선전, 교육을 끊임없이 추진함으로써 비로소 군중을 동원, 조직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혁명정당의 주위에 단결시킬 수 있다고 수차 논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군중을 동원하고 쟁취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나가야만 비로소 대다수 군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sup>46)</sup> 따라서 대중적 실천과 유리된 사변이나 관념을 거부하며 대중을 혁명에 동원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중요시하였던 것이다.<sup>47)</sup>

결국 “대중이 알아들을 말을 하고 대중이 원하는 글을 쓰라”는 원칙에 입각한 김일성의 문풍은 대중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그들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실천적 혁명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즉, 김일성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언어 기법들은 대중들에 대한 설득력을 강화하는 한편, 권력이 의도한 대로 대중의 사상, 의식을 동원하기 위해 치밀하게

44) 위의 책, 2212쪽.

45) 모택동, “민족전쟁 중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1938. 10.), 중국공산당 중앙문헌편집부 편, 『모택동저작선독』, 이희옥 옮김, 『모택동선집 1』(서울: 도서출판 전인, 1989), 311쪽.

46)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허원 옮김, 『정통 중국현대사』(서울: 사계절, 1990), 529쪽.

47)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178쪽.

의도된 언어 전략이었다.

북한 언어 이론이 주장하듯이 김일성의 사상은 김일성의 문풍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다시 말해 주체 사상과 그의 문풍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통일체라는 것이다.<sup>48)</sup>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주체 사상의 이론 체계를 이루고 있는 서술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김일성 담화가 북한 사회의 진리 체계로서 그 절대적 권위를 구축해 나가는 언어의 의식 규정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주체 사상'의 화법 구조

### (1) 통속과 반복의 언어

주체 사상의 서술 체계를 이루고 있는 화법 구조는 통속성과 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먼저 “주체 사상의 원리들과 내용들을 과학적 토대 위에서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며 새로운 사상 리론적 재부들로 주체 사상을 더욱 발전 풍부화시킨 불후의 고전적 문헌”<sup>49)</sup>으로서 이후 “주체 사상에 대한 학습과 연구 선전과 교양을 위한 참된 교과서, 백과전서”<sup>50)</sup>로 인정되고 있는 『주체 사상에 대하여』를 통해 주체 사상의 서술 체계를 살펴보자.

먼저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주체 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48) 언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문풍』, 7쪽.

49)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449쪽.

50) 김창원, “주체 사상은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 주는 혁명학설”, 『근로자』, 12호(1987), 13쪽.

여기서 사람 위주의 철학이라는 명제가 도출된다. 이때 사람이란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속성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사회적 속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며,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인 것이다. ‘창조성’은 자주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루는 것으로 자주성이 주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면 창조성은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된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결국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며, 세계에 숙명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개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 사상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확립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주체 사상의 사회 역사 원리’는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사회 역사 운동의 주체, 본질, 성격, 추진력에 적용시켜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전면적으로 밝혔다”고 평가되는 것으로 “주체 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새로운 사회 력사관, 즉 주체사관”으로 선전되고 있다. 사회 역사 원리는 ① 인민 대중은 사회 력사의 주체, ② 인류 역사는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 ③ 사회 역사적 운동은 인민 대중의 창조적 운동, ④ 혁명 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 대중의 자주적인 사상 의식이라는 네 개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즉, 주체의 사회 역사 원리는 역사의 주체인 근로 인민 대중을 중심에 놓고 역사 발전과 사회 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혔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인민 대중이 사회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이후 “혁명적 수령관”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주체 사상의 지도적 원칙’에서는 주체 사상의 지도적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그 본질과 필요성,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와 과업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일에 따르면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당 및 국가 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으로, 여기에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며 사상 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 원칙들이 밝혀져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 사상을 구현하자면 주체 사상의 지도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sup>51)</sup>을 강조하고 있다.

주체 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바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고 주체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지침을 밝혀 준 것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 다시 말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세우는 문제를 옳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다”<sup>52)</sup>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서 첫째,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이것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창조적 방법을 구현할 데” 대한 원칙은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셋째,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갈 데” 대한 원칙으로, “사상 개조 사업과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인민 대중을 자기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맞들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킴으로써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체 사상의 지도적

5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37쪽.

52)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508쪽.

원칙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 근로 인민 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담보하는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적극 발양시키기 위한 방도들을 제시해 주었다고 선전된다.<sup>53)</sup>

이미 제5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당의 유일 사상 체계는 주체 사상 체계라고 언급하며 주체의 확립은 ① 주인다운 태도의 견지이며, ② 주인다운 태도란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언급된 “주인다운 태도의 견지”, “자주성과 창조성”이라는 두 요소는 이미 1950년대 후반 사상에서의 주체가 언급된 이후 주체 확립의 필요성과 당 위성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설명되어 오던 것으로, 주체 사상의 이론적 체계화 작업에서 본질적 핵을 이루고 있다. 즉, 주체 사상은 그 철학적 원칙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사회 역사 원리와 지도적 원칙에 적용시킴으로써 전일적인 이론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체 사상이란 인간 중심의 철학적 세계관과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 역사관, 그리고 주체의 지도 원칙의 정연한 이론 체계를 확립한 사상으로 정의되고 있다.<sup>54)</sup>

1985년에 간행된 『주체사상 총서』와 『철학사전』에서 주체 사상은 기존의 “사회 역사 원리”에서 도출된 “지도와 대중의 결합” 테제를 통해 “수령관”으로 귀결되고 있다.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것은 사회 역사적 운동, 혁명 운동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그것은 인민 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 역사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55)</sup>

---

53) 위의 사전, 509쪽.

54) 김갑철·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서울: 문우사, 1988), 150쪽.

55)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526쪽.

혁명적 수령관은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으로 수령이 인민 대중의 최고 뇌수, 통일 단결의 중심으로써 역사 발전과 혁명 투쟁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혁명적 수령관의 본질은 수령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드는 견해와 관점, 자세와 입장이다.<sup>56)</sup>

이러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 주체 사상은 핵심적 개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명제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의 사상이다.
- ②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 ③ 력사의 주체는 인민 대중이다.
- ④ 인민 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 ⑤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수령의 령도 밑에서만 완수될 수 있다.

이상의 명제들이 동어 반복적으로 조합됨으로써 주체 사상의 이론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 전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주체 사상은 수령 찬양의 개인 숭배 논리를 결론으로 도출해 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통속적인 3단 논법에 의해 해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 전개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 한 예로 “공산주의 도덕”에 대한 『철학사전』의 설명을 보기로 한다.

공산주의적 도덕은 근로 인민 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략) 공산주의 도덕의 핵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로동 계급의 수령은 근로 인민 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이다. (중략) 수령

---

56) 위의 사진, 602쪽.

께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는 것은 공산주의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다.

위의 예문을 보면 수령이 “근로 인민 대중의 최고 녀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이라는 전제를 설정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공산주의적 도덕”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주체 사상의 논리 체계는 이러한 통속적인 3단 논법에 의해 개인 숭배의 논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리 전개에 있어서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민 대중이 수령 숭배의 비주체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것은 “지도와 대중의 결합 테제”와 “수령관”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때 논리 전개는 비약과 오류로 가득 차 있다. 논증이 정당한 것이기 위해서는 첫째 그 전제들이 옳은가, 둘째 그 전제들은 그 결론과 올바르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sup>57)</sup> 물론 권력의 언어에 있어서 객관적인 진위를 가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수 있다. 이미 언어와 사상이 수령에 의해 사유화됨에 따라 그 언어는 단지 선언되어질 뿐이며, 진리의 판명권 또한 지도자의 선언에 의한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서로 간에 모순적이며 불일치하는가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수령관의 도출을 위한 “지도와 대중의 결합 테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것은 사회 역사적 운동, 혁명 운동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그것은 인민 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 력사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민 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 관계를 자각하고 그 실현을 위해 창발성과 의식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 대중은 스스로 력사의 주체로서의 근본 요구와 리해

57) 웨즈리 C. 새먼, 광강제 율김, 『논리학』(서울 : 박영사, 1982), 17~19쪽.

관계를 옳게 자각할 수 없다. (중략) 인민 대중은 옳은 지도를 받을 때만이 자기의 이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창발성과 의식성을 발휘할 수 있다.<sup>58)</sup>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전제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인민 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다.

② 그러나 인민 대중은 스스로 역사의 주체로서의 근본 요구와 이해 관계를 옳게 자각할 수 없다.

③ 인민 대중은 지도를 받을 때만이 자기의 이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창발성과 의식성을 발휘한다.

여기서 ①과 ②는 모순 관계에 있다. 즉, 인민 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나 그 자체로 역사의 주체가 아닌 것이다. 또한 ②와 ③은 순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인민 대중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민 대중은 수령의 지도를 받을 때만 역사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또는 “인민 대중은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논리 전개에 따르면 역사의 주체인 인민 대중이 왜 그 스스로는 주체가 될 수 없는지는 결국 해명이 되지 않는다. 주체 사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순환론적 오류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결국 이러한 전제들은 어느 것도 그 진위가 명쾌히 해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오류투성이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지도자 개인 숭배의 논리를 이성적 논리 체계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것임

---

58)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526쪽.



로 개인 숭배의 논리가 비약과 역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통속적인 3단 논법의 그럴듯한 동어 반복을 사용하여 주체 사상은 스스로를 “세계와 역사에 관한 가장 과학적 이론”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때 ‘과학’이라는 주장은 개인 숭배의 논리가 감정에 의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그 논리에 진리성과 필연성을 부가하는 것이다.

롤랑 바르트는 동어 반복을 가리켜 “어떤 것을 바로 그것에 의해서 정의하는 언어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그것은 바로 연극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동어 반복(tautologie)에는 이중적 살인이 있다.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살해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언어를 살해한다. 왜냐하면 언어가 우리를 배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어 반복은 지금 이 순간 명칭해지는 것이다. 동어 반복은 유익한 실어증이다. 동어 반복은 죽음 혹은 일종의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중략) 동어 반복은 죽은 세상, 다시 말해 부동하는 세상을 만들어낸다.<sup>59)</sup>

따라서 주체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 제반 특징적 화법들, 즉 진부한 구절과 상투어의 반복적 사용 등은 대중들의 의식을 마비시켜 무비판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정치 언어가 갖는 일종의 ‘파블로프적 신호(Pavlovian cues)’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60)</sup> 즉, 조지 오웰이 간파한 바 있듯이 김일성은 수없이 해서 익숙해진 연설을 함으

59) 롤랑 바르트, 장현 옮김, 『신화론』(서울: 현대미학사, 1995), 85쪽.

60) 에델만은 상황과 적절한 신호가 함께 발생한다면 이때 언어란 분석과 추론을 위한 도구이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파블로프적 신호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Edelman, M.,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4), p. 116.

로써 사람들의 의식 상태를 회유하여 체제 순응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때 연설자와 청중들, 즉 수령과 인민 대중은 서로 무의식적 만족을 공유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방해하고 합리적인 행위를 불가능하게 한다.<sup>61)</sup>

## (2) 신화적 언어

정치 상징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체 사상은 정치 신화로써 존재한다. 주체 사상은 일종의 정치 신화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sup>62)</sup> 주체 사상의 정치 신화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수천년 오랜 역사 동안 인민 대중은 착취 계급에 의해서 자주성과 창조성이 유린되는 암흑의 시기를 경험했으며, 위대한 수령에 의해 자주성과 창조성이 실현되는 광명의 빛, 주체 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인민 대중이 주인으로 등장하는 주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주체의 시대는 “인민 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sup>63)</sup>인 것이다. 이때 인민 앞에 새 역사를 열어준 수령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수식어로 찬양되고 있다.

진정 우리의 수령님은 일찍이 그 누구도 지닌 적이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한 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혁명 리론

---

61) *Ibid.*, p. 126.

62) 건국 신화는 국가나 민족의 기원에 관한 신화로서 어떻게 그 집단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며, 어떤 집단의 패권, 주권, 독립, 영토 등을 주장하고 집단의 단결을 강화시켜 준다. 건국 신화는 그 정치 질서의 기원을 설명하고, 현실 질서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며, 대내적 단결과 대외적 독립 및 저항 의식을 고취시켜 준다. 이것을 바로 ‘신화의 정치화’라고 한다. 정우일·유영욱 공저, 『상징정책론』(서울: 흥익계, 1991), 244쪽 참조.

63) 김정일, 『영화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1쪽.

과 위대한 혁명 실천으로 현대 역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빛내이신 로동 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며 혁명 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장구한 혁명 투쟁의 전로정을 찬란히 수놓아 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다.<sup>64)</sup>

신화란 어떤 것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바르트가 언급했듯이 주체 사상에 의해 ‘새로운’ 역사가 탄생한다. “혁명 가계”에 의해 창출된 “혁명 전통”이 북한 체제의 생래적 정통성으로 등장하고,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통해 그 역사는 현재화한다. 이때 “혁명전통”과 “회상기”는 일종의 영웅 신화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화적 사고 구조가 형성된다. 궁극적으로 신화의 본질은 어떠한 사실적 근거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화는 결코 과학적·합리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화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로 믿어지는 주관적 사실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sup>65)</sup>

신화적 상징 체계로서 주체 사상의 언어 구조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은유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때 주체 사상의 언어는 암시적이고 다의적으로 개념이 정의된다. 그 대표적인 어휘로서 ‘주체’라는 용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철학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①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을 표현한 술어.
- ②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이리

64)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15쪽.

65) 김태곤·최운식·김진연 공저, 『한국의 신화』(서울: 시인사, 1988), 7쪽.

한 창조적이며 자주적인 원칙과 입장을 표현하는 술어.

③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기 위한 활동을 주동적으로 목적 의식적으로 벌리는 직접적 담당자이며 이 활동을 추동하는 기본 요인. 주체라는 개념은 주체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는 대상과 대립되는 개념일 뿐 아니라 물질들의 호상 작용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의 운동의 담당자와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기 위한 인식과 실천활동의 주체는 사람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주체’란 철학적 인식의 주체를 말하는 동시에 사회 역사의 인민 주체, 반사대주어로서의 민족의 주체를 의미하는 한편, 주체 사상의 개념인 자주성과 창조성의 견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다의성과 함축성은 주체를 ‘마법어’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카시러는 정치 신화를 구성하는 첫 조치로서 언어 조작을 들었으며 이때 원시 사회에서나 있음직한 마법어가 주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sup>66)</sup> 여기서 마법어란 기술적·논리적 언어와 상반되는 감정적이고 개인의 판단력과 비판적 식별력을 잠재우는 제의적 언어를 의미한다. ‘주체’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마법어의 역할을 한다.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가 체제의 목표 문화로 선언됨에 따라 ‘주체’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준거점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체 사상은 북한 사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도, 반론도 제기되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되기에 이르렀다. “주체”인가 “비주체”인가가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가리는 유일한 기준이 된 것이

---

66) 여기서 그는 언어를 ‘어의적 언어’와 ‘마법적 언어’로 구분하여 전자가 기술적·논리적 성격을 갖는 반면 후자는 감정과 결렬한 격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나치 독일의 『나치독일어: 현대 독일관용어 소사전』 분석을 통해 언어의 개념 조작을 통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국민들의 의식의 지배를 밝히고 있다. E. 카시러, 최명관 옮김, 『국가와 신화』(서울: 서광사, 1988), 343쪽 참조.

다. 따라서 “주체의” 또는 “주체적”으로 시작되는 모든 언어들은 그 자체로 의심할 수 없는 공리로, 법으로 전달된다. 다음은 『철학사전』에 등재된 있는 “주체의” 어휘들을 살펴보겠다.

#### ① 주체형 공산주의적 인간

위대한 주체 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의 생명으로 간직하고 주체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가.<sup>67)</sup>

#### ② 주체의 령도 예술

근로 인민 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의 지위에 내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령도 예술.<sup>68)</sup>

#### ③ 주체의 사업 방법

주체 사상을 사상 이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 있는 대중과의 사업 방법. 주체의 사업 방법은 곧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 방법이다.<sup>69)</sup>

#### ④ 주체의 혁명관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 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 대중을 위하여 건결히 싸워 나가는 혁명 정신. 인민 대중을 위하여 건결히 싸워나가는 혁명 정신은 수령의 사상과 이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해 나가는 끝없는 충실성에서 나타나야 한다.<sup>70)</sup>

---

67)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518쪽.

68) 위의 사전, 519쪽.

69) 위의 사전, 520쪽.

70) 위의 사전, 521쪽.

### ⑤ 주체의 혁명 위업

주체 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근로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 나가는 혁명 위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 밑에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혁명 위업을 말한다.<sup>71)</sup>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체’는 북한 사회의 ‘마법어’로서 모든 판단의 준거이자 정의의 기준으로 그 마법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체’가 ‘수령’과 동격시됨으로써 영웅 신화를 탄생시키기 위한 또 한번의 마법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 주체 사상의 언어에서 “주체의”로 시작되는 모든 용어들은 김일성 찬양으로 채색되어 있다. 이는 실제로 동일한 내용이 때로는 “수령의 령도 예술”, “수령의 사업 방법”, “수령의 혁명관”, “수령의 혁명 위업”으로 바뀌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주체=수령’의 등식이 성립된다. 결국 이와 같은 “주체”의 절대화는 “주체 사상”과 동일시되는 수령 김일성의 절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의 언어는 결국 폐쇄적 언어 체계를 구성한다. 마르크체가 이미 언급했듯이, 폐쇄적 언어는 증명하고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정과 단정과 명령을 전달한다. 그것은 ‘선과 악’을 정의하며,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옳고 그름을 확립하며, 하나의 가치를 다른 가치의 정당한 근거로 만든다. 그것은 동어 반복 속에서 맴돌지만 그 동어 반복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효과적인 문장들을 이룬다.<sup>72)</sup> 따라서 이러한 언어 조작에 의해 이성애 호소한 설득보다 무비판적 감정의 일체화가 이루어지며, 합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동조에 의한 지배가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다.

---

71) 위의 사진, 522쪽.

72) Marcuse, Herbert, *One Dimensional Man*(Boston : Beacon Press, 1966), p. 96.

또한 주체 사상의 언어 체계는 의례적이고 권위주의적 형태를 나타낸다. 즉, 지배 언어가 선전의 언어로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며, 이 언어는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허위를 부과한다. 이것은 자기 확증주의이자 최면적 공식에 머무르는 발육 정지와 모순으로부터의 면역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미술적이고 의례적인 언어의 진술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회유하여 주문에 제시된 조건 안에서 못 벗어나도록 하는 효과를 일으킨다.<sup>73)</sup> 따라서 각각의 담화 세계를 형성하는 권력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폐쇄적인 개념 정의를 통해 “수령은 인민 대중의 최고 뇌수”라는 표현이 북한 사회의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 오웰적 언어(“평화는 전쟁이다”, “전쟁은 평화이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sup>74)</sup>

따라서 동어 반복과 신화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김일성의 언어가 북한 사회에서 절대적 진리로 권위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김일성 개인에 대한 절대화와 이상화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심리 구조적 조건이 북한 사회에서 형성된 것이다.

73) *Ibid.*, pp. 102~103.

74) 개인이든 집합적이든 그들의 의식이 국가에 소유되고 철저히 순응되고 통제될 수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지배자에 의하여 좌우되며 결국 그들은 주체성을 박탈당하게 되어 자기들의 신봉을 강요받는 대상에 대해 어떤 의혹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반발하거나 사고하고 창조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이미 생명력이 없는 대상이 돼 버린 것이다. Kolakowski, Leszek, “전체주의와 거짓의 미덕”, 어빙 호우 편저, 한태희 옮김, 『전체주의 연구』(서울: 문지사, 1980), 175쪽 참조.

### 3. 김일성 담화 '인용'의 원칙

#### 1) '김일성저작집'의 출간과 김일성 언어의 절대화

유일 체제 구축을 통한 김일성 권력의 절대화 작업은 김일성 담화의 절대화 작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즉,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모든 언설들은 주민들에게 하나의 교시로서, 지침으로서 절대화되어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김일성 언어의 절대화는 언어의 독점을 통해 완성되었다.

북한의 모든 문헌들은 1950년대 이전의 소련에서 스탈린의 말을 반드시 인용해야 했던 스탈린주의적 '인용학'적 전례에 따라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아무도 의심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자명성을 가진 공리의 구실을 하고 있다.<sup>75)</sup> 다른 의견은 다만 해설과 찬사만이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이 당에 주어지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 해석권이 당이 아닌 수령 김일성에 의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학자들의 연구도 김일성 사상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독점은 언어의 사유화를 동반한다. 이것이 바로 스탈린주의적 인용학의 속성으로, 스탈린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자로 자처함으로써 사상의 1인 독점을 가능케 했던데 비해 김일성은

---

75) '인용학'이라는 용어는 신일철 교수가 언급한 용어로서 그는 스탈린 체제에서 스탈린의 말을 반드시 인용해야 하는 원칙을 "인용학"이라고 칭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도 이 개념을 원용하여 '인용'의 원칙을 신일철 교수가 표현한 "인용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신일철, "북한주체철학의 개인승배 교조적 성격", 『북한주체철학연구』(서울: 나남, 1993), 191쪽 참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자로서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체 사상의 창시자로 자처함으로써 사상가로서 그 지위를 격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 교시의 인용은 스탈린적 인용학보다도 더욱 절대적인 규범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즉, 수령을 유일 사상의 창시자로 만듦으로써 있을 수 있는 수령에 대한 모든 도전을 봉쇄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 학습이 강조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양이 공산주의 혁명가의 필수 요건으로 되기도 했다.<sup>76)</sup> 그러다가 유일 체제 수립이 시도된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모든 문제 판단의 준거는 김일성 저작으로 귀착되었고, 특히 『김일성저작선집』 출간을 통하여 모든 사상 이론적인 문제나 사업 지침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1967년 3월 김일성은 당의 유일 사상 체제를 세우는 문제와 관련하여 학습하여야 할 내용을 언급하면서 레닌, 스탈린이 쓴 저작은 몇 개만 읽고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우리 당 문헌을 학습해야 한다”<sup>77)</sup>고 강조함으로써 사상적 권위의 독점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1953년에 출판된 전4권에 이어 1960년대부터 다시 출판되기 시작한 『김일성선집』은 1961년 9월 제4차 당 대회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학습되기 시작했으며,<sup>78)</sup> 196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김일성 저작의 교양 학습이 유일 사상 체제 확립의 차원에서 전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김일성 저작의 본격적인 학습은 유일 사상 체제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북한에서 일체의 사상 이론적인 문제나 사업 지침이 김일성의 언어로 대중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이 과정에서 대중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76) 196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대표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서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유물론』, 상권, 하권(1962, 1966)에서 김일성의 말이 인용되어 삽입되기 시작했다.

77) 김일성, “당 사업을 개선하며 당 대표자회 결정을……”(1967. 3. 17.~24.), 『김일성저작집 21』(1983), 172쪽.

78) “『김일성선집』을 심오히 연구하자”, 『로동신문』, 1961년 9월 4일.

김일성을 동일시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동일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도자에 대한 신성화, 절대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sup>79)</sup>

김일성 개인의 연설, 보고, 논문들은 모두 『김일성선집』이나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북한의 모든 문헌들의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즉, 북한의 모든 당정 문헌, 심지어 학술 서적과 이론 서적도 서술 방식은 김일성 교시문과 그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김일성의 저작들은 북한의 모든 공공 집회, 연설, 보고회 등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상 언어 생활에까지도 인용해야 하는 북한의 사상, 이론의 원전(原典)으로서 굳립하게 된 것이다. 즉 김일성의 저작이 총망라되어 있는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은 북한 사회에서는 일종의 “경전”이며, 그 이외의 북한 문헌은 모두 이 경전의 주석서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김일성의 “말”이 북한 사회의 준거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김일성 언어의 절대화의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수령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령의 ‘무오류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철학사전』에 따르면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당과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자 “인민 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으로서 그의 지위는 절대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수령이 인민 대중의 최고 뇌수이기 때문에 “수령에 의해서만 혁명의 지도 사상이 창시되고 심화 발전”되며, “로동 계급의 혁명 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위업”으로 된다고 한다.

수령이 로동 계급의 혁명 위업 수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수령에 의해서만 혁명의 지도 사상이 창시되고 심화 발전되기 때문이다. (중략) 수령은

---

79)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291쪽.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을 지니고 지칠 줄 모르는 사상리론 활동과 실천 활동을 벌인다. 수령은 백과전서적인 지식과 끝없이 풍부한 혁명 투쟁 경험을 가지고 있다.<sup>80)</sup>

이러한 ‘수령론’에 근거한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들 것”을 규범화하며, 그것을 “혁명 전사의 본분”으로까지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저작과 교시를 깊이 연구 체득하여 그것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모든 사업을 전개하여 갈 것을 “혁명 전사의 가장 숭고한 의무”로 요구하고 있다. 결국 수령의 담화는 수령론에 의해 그 의미가 절대적으로 평가되는 한편, 역으로 수령의 절대화 작업은 수령 담화의 절대화 작업에 의해 인식론적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수령 담화의 ‘무오류성’은 선집의 지속적인 수정과 삭제 작업을 통해 보장되어 왔다.<sup>81)</sup> 즉 김일성의 담화는 선집의 개정 과정을 통해 당시의 언어 패러다임에 부적절한 용어를 수정하거나 정치적 상황에 불리한 언설들은 삭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절하게’ 개정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현재하는’ 김일성의 담화들에서는 오류가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다. 김일성은 자신의 저작들을 재판 출간할 때마다 기존의 저작들에 대한 선별적인 수정 작업을 벌여 왔다. 이것은 결국 김일성의 담화를 무오류의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관건으로서 항상 “현재하는” 진리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의 저작들은 그 자체로 법이요, 진리로 인정됨으

80)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377쪽.

81) 이것은 또한 상황 변화에 따라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일성이 지배의 정당화 과정에서 언어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밀한 언어 조작을 감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로써 중세 시대의 성경과도 같은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그 담화의 발화자, 그 진리의 설파자가 신(神)으로 추앙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 2) 사전 편찬과 '인용'의 규범화

김일성 담화의 인용학적 서술 방식이 가장 철저히, 그리고 내용적으로 가장 총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북한의 사전, 그 중에서도 『정치용어사전』, 『정치사전』, 『철학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교시문의 절대화 작업은 1970년에 간행된 『정치용어사전』, 『철학사전』의 편찬을 통해 구체화되었다.<sup>82)</sup> 1970년대에 들어와 부문별 사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이 전문 사전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김일성 유일 체제의 구축을 위한 김일성 사상의 교조화 작업의 일환이었다. 즉, 1970년 4월에 간행된 이 두 사전은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 당 대회에서 선언되고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김일성 유일 지도 체제의 사상적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사전의 구성 방식은 모두 『김일성선집』 등 김일성 저작에 제시된 교시문을 인용구로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김일성 교시문을 사전에 인용하는 방식은 이미 1969년에 편찬된 『현대조선말사전』<sup>83)</sup>에서 김일성 어록이 올림말의 풀이 뒤에 실림으로써 처음 사용되

82) 그 이전에도 북한의 여러 사전(『조선어소사전』, 『조선말사전』, 『현대조선말사전』)에서 철학이나 사회 과학 용어들을 다루고 있었으나 이것은 대개가 소련 사전의 변안말이거나 개작에 불과했다.

83) 북한에서는 국어 사전도 그 정치적 의미가 명시되어 있다. 1962년에 간행된 『조선말사전』에서부터 사전의 '정치 사상성'과 '당성'이 강조되고, 정치 용어의 주석과 수많은

었다. 그러나 새로 간행된 이 두 사전에서는 김일성 어록이 먼저 제시되고 그에 대한 뜻풀이 형식으로 용어들이 해설됨으로써 김일성 어록 해설집의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때 김일성의 인용문은 활자체를 달리하여 진한 고딕체를 사용함으로써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인용학적 서술 체계는 사전류를 비롯한 이론 서적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체 사상에 관한 사항에서는 김일성과 함께 김정일의 어록이 인용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결국 후계자 김정일이 수령 김일성과 더불어 사상의 해석권자로 등장하여 사고와 판단의 결정권자로 제시됨으로써 후계 체제 구축을 위한 대중적 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후계자 선정이 단순한 세습이 아니라 후계자의 탁월한 능력에 의한 것임을 선전할 수 있었다. 즉, “수령의 직접적 계승자, 후계자는 오직 수령의 혁명 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고 그것을 옹호 관철”할 수 있는 “탁월한 령도력과 천재적 예지를 가진 사람”<sup>84)</sup>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와서 수령론과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언설들이 김정일의 이름을 빌려 주장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개정판 『철학사전』에 실려 있는 “수령”, “수령님 사업 방식”, “수령, 당, 계급, 대중의 호상 관계”, “수령에 대한 충실성”,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등 수령론에 관한 항목들은 모두 김정일의 인용문과 그에 관한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즉, 김일성 본인 스스로 언급하기 힘든 수령 숭배의 담론을 김정일의 이름을 통

---

용해가 집중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1969년 『조선말사전』에는 “당의 유일 사상 체계가 철저히 서고 정치 사상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북한의 사전은 순수 어학 사전도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정치 사상 교양 어휘집으로 활용되고 있다.

84)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386쪽.

해 구체화함으로써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규범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정일의 절대화 작업이 동시에 추진된 것이다.

또한 1985년 『철학사전』에서부터는 그 동안 간헐적으로 언급되었던 레닌의 간접 인용<sup>85)</sup>마저도 사라지게 되었으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인용만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김일성 한 사람 외에는 단 한 명의 어떠한 철학자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저작들을 철저히 정치화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의 교시는 암송의 대상이지 토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김일성의 언어는 북한 사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논의의 권위적 논거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일성의 말은 북한 사회에서 “법요 진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의 담화가 북한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획득하게 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반박이 필요 없는 이단으로 전략하게 되는 것이다.

오웰이 언어를 독점하는 것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듯이 김일성은 북한 사회에서 언어의 독점, 언어의 사유화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그의 독재 권력이 대중들의 지지와 동의 속에 가능할 수 있는 대중의 심리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은 이와 같이 언어와 사상의 사유화를 통해 지배 관계의 전제성과 비민주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러한 권위 구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심리 구조적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

85) 1970년판 『철학사전』에서는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레닌의 간접 인용이 사용되었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이라는 항목에는 레닌의 간접 인용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은 1985년판 사전에서는 삭제되어 있다.

## 4. 맺음말

김일성은 집권 초기부터 혁명과 건설에서의 대중 설득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사람의 '의식'을 개조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간파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김일성 담화의 언어 전략을 분석했다.

먼저, 김일성은 대중적 문풍과 화법을 통해 그의 담화가 대중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내면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구사해왔다. 김일성은 언어를 혁명의 무기이자 사상 개조의 수단으로 보았으며 언어의 사용도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구사하여 왔다. "대중의 심리를 움직이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며 "설복하고 교양"하기 위한 목적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김일성의 언어 표현 기법, 즉 수령의 '문풍'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감정적인 동질감을 느끼며,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효과를 얻도록 의도된 방법들이다.

한편 김일성의 담화는 북한의 모든 문헌의 유일한 인용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 자체로서 북한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로 군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즉, 북한은 스탈린의 인용학적 전례에 따라 철저히 모든 사유의 판단 근거를 김일성의 '언어'로 귀결시키는 인용학을 규범화함으로써 김일성이 전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군림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마련했던 것이다. 김일성 담화 인용의 원칙은 북한의 모든 당정 문헌, 그리고 모든 이론 서적들이 김일성 교시문의 주석서로 전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김일성의 언설들은 일반적인 지도자 담화문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자체로 진리 체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지도자의 일구 일언에 대한 비판과 이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도자의 말을 경

전화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 우상화와 개인 숭배가 당연하게 수용되는 심리 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말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김일성은 정권 초기부터 대중 설득에 주력하였으며,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된 언어 기법들은 대중들의 심리를 움직여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심리적 동의 형성을 구조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인다. 즉, 김일성의 담화를 특징짓는 진부한 구절과 상투어의 반복적 사용 등을 통한 언어 기법은 대중의 비판 의식을 마비시키고 맹목적인 동조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김일성 유일 독재 체제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조를 가능케 한 것이다. 나아가 김일성 정권은 “수령의 문풍을 따라 배울 것”을 언어 사용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수령의 “로작과 교시”에 표현된 어휘와 문장, 표현 수법 등을 학습, 모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령과 인민 대중 간의 심리적 일체감 형성을 통해 대중들의 심리적 동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용어사전』(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 김갑철·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서울 : 문우사, 1988).
-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2판 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 , 『김일성저작선집』, 각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1987).
- , 『김일성저작집』, 각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1997).
- ,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 ,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73), 252쪽.
- 김정일, 『영화예술론』(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 ,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김정휘 · 정순기, 『주체의 언어이론연구』(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 김창원, “주체사상은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 주는 혁명학설”, 『근로자』, 12호(1987).
- 김태곤 · 최운식 · 김진연 공저, 『한국의 신화』(서울 : 시인사, 1988).
- 롤랑 바르트, 정현 옮김, 『신화론』(서울 : 현대미학사, 1995).
- 모택동, 『모택동선집 4』(북경 : 민족출판사, 1962).
- 사회과학원 어학연구소 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언어사상』(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1).
- , 『우리당의 언어정책』(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6).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1985).
- 사회과학원 편,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 , 『정치용어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 청계연구소, 1989).
- 신일철, 『북한주체철학연구』(서울 : 나남, 1993).
- 언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문풍』(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6).
- , 『조선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평양 : 과학원출판사, 1962).
- 윌터 옹, 이기우 ·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서울 : 문예출판사, 1995).
- 웨즈리 C. 새먼, 곽강제 옮김, 『논리학』(서울 : 박영사, 1982).
- 이상벽, 『조선말화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 역사비평사, 2000).

- , 『조선로동당연구』(서울 : 역사비평사, 1995).
- 이정식 · 스칼라피노,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서울 : 돌베개, 1986).
- C. 엘더, R. 콕, 유영옥 옮김, 『상징의 정치적 이용』(서울 : 홍익제, 1993).
- 정우일 · 유영옥 공저, 『상징정책론』(서울 : 홍익제, 1991).
- 조지 오웰, 김병익 옮김, 『1984년』(서울 : 문예출판사, 1993).
-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허원 옮김, 『정통 중국현대사』(서울 : 세계  
 절, 1990).
- 중국공산당 중앙문헌편집위 편, 『모택동저작선독』, 이희옥 옮김, 『모택동  
 선집 I』(서울 : 도서출판전인, 1989).
- E. 캣시러, 최명관 옮김, 『국가와 신화』(서울 : 서광사, 1988).
- Kolakowski, Leszek, “전체주의와 거짓의 미덕”, 어빙 호우 편저, 한태희  
 옮김, 『전체주의 연구』(서울 : 문지사, 1980).
- Reboul, Olivier, 홍재성 · 권오룡 옮김, 『언어와 이데올로기』(서울 : 역사비  
 평사, 1995).
- Edelman, Murray,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Illinois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4).
- Johnson, Chalmers,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Stanford, California  
 : University of Stanford Press, 1970).
- Marcuse, Herbert, *One-Dimensional Man*(Boston : Beacon Press, 1966).
- Merriam, Charles E., *Political Power*(New York : Collier Books, 1964).
- Pocock, J. G. A., *Politics, Language and Time*(New York : Atheneum,  
 1971).
- Shapiro, Michael J., *Language and Political Understanding*(New haven  
 : University of Yale Press, 1981).

Skinner, Quentin, "Meaning and understanding in the history of ideas",  
in Tully, James(ed.), *Meaning and Context : Quentin Skinner  
and his Critics*(University of Princeton Press, 1988).

Suh, Dae-Sook, *Korean Communism, 1945 ~1980*(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1).

(Abstract)

## The Study on Linguistic Strategy of Kim Il Sung's Speech

Jeon Mi Young(Academy of Korean Study, Political Science)

This paper examines North Korea's linguistic persuasion strategy used to justify Kim Il Sung's absolute power. Kim Il Sung urged the importance of public persuasion in a social revolution and construction since his coming into power. Kim Il Sung had used his own writing style and speech skill to persuade people to support his policy and absolute power effectively. Kim Il Sung regarded language as "an arms of revolution" and "a means of thought-remolding."

Kim's calculated speech styles consist of easiness, repetition, metaphors, Korean language, statistics, and itemization. These speech styles are intentional in order to persuade his people more easily. In addition, Kim's speeches are the only reference books in North Korea. Since the speeches of Kim Il Sung are the most important basis of argument in North Korea, his speeches hold great authority.

How is it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support absolute power? Why do they not rebel against the political regime and their political leader? The irony of North Korean politics is that it rests on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at is, the political leader of North Korea has succeeded in public persuasion and has received the consent of the people. Kim Il Sung, who knew 'the power of language' better than anyone else, concentrated his efforts on persuading the people from the beginning of his reign.

His speech, with very carefully calculated language, could elicit people's consent from both the ruling class and the ruled.

Key Words : North Korea, Linguistic strategy, Public persuasion.